Entertainment p/21

연말 극장가 할리우드 공세

메트로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제3105호 www.metroseoul.co.kr

고개 드는 스마트폰 '변종 보조금'

요금제 변경때 차액 지급 기번 가입자 대상 홍보전 결합상품 땐 50만원 까지 시장안정화 기조 역주행

"지금 이용중인 '67요금제' 등 '89요금제'로 변경하고, 3개월만 유지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드려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2일 단통법 시행 두 달여가 지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용자 차별행위와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소재 A이통사 대리점에서는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된 단말기 지원금 외에 고가 요금제 3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처럼 고가 요금제 유도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과거에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만연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기변 가입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대리점에서는 '67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아이폰6'로 기기변경을 위해 방문하자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현금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며 유인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기존 중고폰 보상금과 신규 단말기에 적용되는 지원금만으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원래 67요금제를 이용해 왔으니 89요금제를 3개월만 이용하면 요금제 차액인 2만2000원씩 3개월 비용 6만6000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기변 고객은 3개월만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해당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한 이용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공짜폰도 넘쳐났지만 최근에는 기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현금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기존에 이용하던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3개월간 이용해야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은 결합상품을 통해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단통법에 따른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자, 보조금이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신림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IPTV,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결합가입 시 50만원을 지급한다며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만 가입하면 보조금 효과가 미미하지만,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변종 보조금'이 등장하고 '아이폰6 대란' 처럼 불법 보조금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며 시장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하루 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8363명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10월 하루 평균 3만6935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하루 평균 가입자가 5만4957명으로 다시 급증하며 시장안정화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다양한 종류의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내년도 예산 375조4000억원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김정은 윤정린 호위사령관과 '팔짱'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자신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직속 포병부대를 시찰하는 동안 윤정린 호위사령관과 팔짱을 끼며 각별한 친근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 김 제1위원장이 활짝 웃는 얼굴로 윤 사령관을 잡아당기듯 팔짱을 낀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6000억 삭감

여야 총 375조4000억 확정
12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담뱃값 예정대로 2000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 예산안 규모를 375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으며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검비·단속직 근로자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이날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우선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건설사 M&A, '악일까 독일까'

기지 수첩
김 두 탁
<경제산업부 차장>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매물로 나온 부실 건설사 매각 작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19위 업체인 쌍용건설에 대한 인수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매물로 나와있는 여타 건설사들에 대한 M&A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10여개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가운데 현재 M&A를 추진 중인 주요 건설업체는 극동건설, 금호산업, 남광토건, 쌍용건설, 한진, LIG건설 등이 있다.

먼저 이달 중순 이후 본입찰이 시작될 예정인 쌍용건설은 최근 예비입찰에서 2개의 외국계 펀드와 2개의 국내 기업 등 4곳이 인수적격후보로 선정됐다.

특히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중동 두바이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사모펀드가 각각 인수 의사를 밝혀 쌍용건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IG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동산 개발 시행위제 현승디앤씨와 매각가에 대한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내 매각을 매듭 짓는다는 목표다.

아파트 브랜드 '헨진에버빌'로 잘 알려진 한진 또한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악성채무까지 털어낸 상태로 M&A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된 소위 승자의 저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속에 추진되고 있는 건설사 M&A가 이번엔 모두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료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검찰 수사 먼저" vs 野 "국조·특검"

'靑 정윤회 문건' 놓고 여야 공방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2일 이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범위"라며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에 방점을 두고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국회 종료 직후부터 상설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게이트' 진상 규명에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홍준표 "진보 좌파 무상파티 이제 끝내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과 관련, 진보 진영의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지사는 "경남도는 2년 동안 하루 평균 7억3400만원씩 쉼 없이 빚을 갚았다"며 "개인이나 나라나 빚을 안고 살림살이가 건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무분별한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급식하는데도 무상이라고 거짓 선전에 놀아난 지난 4년 동안 진보 좌파의 무상파티는 이제 경남에서 종식되어 한다"며 "더 이상 애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는 진보 좌파의 무상 파티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경남 교육 수준이 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해 적극 대처해야지 무상급식에 목맬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이재오 "개헌 찬성 의원 200명 넘어"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중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 추진세미나'에 참석,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1급 공무원 전원 사표 제출

● 통일부 1급 공무원 전원이 황부기 차관이 임명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황 차관(행정고시 31회)의 발탁으로 기존 1급 공무원 대부분이 황 차관보다 기수가 높아지자 1급 전원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기봉 등탑 철거 자리에 9m 성탄 트리

● 성탄절을 전후로 김포시 애기봉에 성탄 트리가 다시 설치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 성탄절을 전후로 남북 평화를 기리기 위해 애기봉에 임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했니"며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9m 높이의 성탄 트리는 지난 10월 해병대가 철거한 등탑 자리에 설치된다.

<영어 수학>

'물수능' 현실로…만점자 최다

수학 B 1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져
인문계 국어·자연계 과학탐구 변수될 듯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와 수학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워 만점자가 속출했다.

영어 만점자 비율이 3.37%로 수능 사상 최고에 달했으며, 수학 B형 만점자 비율은 지난해 0.58%보다 높은 4.30%로 나타났다. 반면 국어 B형은 만점자가 0.09%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과학탐구 등의 과목이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2일 발표했다. 수능 성적표는 3일 배부된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이하 괄호 안은 비율)은 국어 A형 132점(1.37%), 국어 B형 139점(0.09%), 수학 A형 131점(2.54%), 수학 B형 125점(4.30%), 영어 132점(3.37%)이다.

영어 만점자 비율 3.37%(1만 9564명)는 수능 사상 최고 수치다. 역대 최고의 물수능 영어로 평가

2015학년도 수능 주요과목 만점자 비율 추이

영어: 2011 0.31 / 2012 2.67 / 2013 0.66 / 2014 1.13 / 2015 3.37 (최고)

수학B: 2011 0.02 / 2012 0.31 / 2013 0.76 / 2014 0.58 / 2015 4.3 (최고)

연합뉴스

받은 2012학년도 2.67%보다 0.7%P(포인트)가 높다. 수학 B형 역시 만점자 비율 4.3%는 역대 최고 수치로 등급제가 실시된 2008학년도의 4.16%(추정치)를 넘었다. 한 문제만 틀려도 4%대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질 정도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A형의 경우 만점자 비율이 2.54%로 지난해 수능 0.97%보다 1.57%P 증가했다.

반면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선택한 국어 B형의 만점자 비율은 응시자 31만 906명 289명에 불과한 0.09%로 2011학년도 언어 영역의 0.06% 이후 가장 낮았다.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 A형 129점, 국어 B형 130점 ▲수학 A형 129점, 수학 B형 125점 ▲영어 130점이다.

과학탐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지구과학 Ⅱ(5.81%), 화학 Ⅱ(5.81%), 지구과학 Ⅰ(5.49%)이 높았다. 화학 Ⅰ(4.12%), 물리Ⅱ(4.28%), 물리 Ⅰ(4.36%)는 낮았다. 복수정답 혼란을 빚은 생명과학Ⅱ는 전체 응시자 3만 933명 가운데 만점자가 64명(0.21%)에 그쳤다.

올해 수능 난이도 실패 논란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용기 수능시험본부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점자 비율은 출제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홍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러시아 극동 서베링해에서 트롤선 '오룡501호'가 침몰한 가운데 2일 오전 사고 선박 선사인 사조산업 부산지사에서 김정수 사조산업 사장과 임채옥 이사(가운데) 등 경영진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양어선 '오룡호' 베링해서 침몰 · 최소 1명 사망
실종자 52명 구조소식 없어

지난 1일 오후 2시 20분께 러시아 베링해 인근에서 선원 60명을 태우고 조업중이던 명태잡이 어선 '501 오룡호'가 침몰한 직후부터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밤새 벌어졌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4시 현재 오룡호에 승선한 선원 60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7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1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한국인 선원 10명을 포함해 총 52명이다.

이날 외교부는 "밤새 추가 구조 소식은 없다"면서 "현재 사고 수역에서 수색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고 해역은 수온이 영하 0도 안팎에 불과한 데다 실종 선원 대부분이 급박한 상황에서 미처 구명 벗목에 탑승하지 못해 구명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생존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0도 정도일 경우 체온 유지를 위한 특수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15분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한국 러시아 선박 4척이 4마일을 기준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다. /송주원기자

"이번주까지 춥다"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일 오후 서울 낮 최고기온까지 영하권에 머물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국섬 한강공원에서 선착장에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이 매달려있다. 기상청은 이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계란 투척자 고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이들을 고소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자신과 변호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둘러싸 10~20분간 이동을 막고 차를 향해 계란을 던진 혐의(감금·협박·폭행 등)로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며 남녀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덧붙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주원기자

노사정, 비정규직 고용 규제 등 14개 논의과제로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해소 등 국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의제 분야에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차별 시정 제도 개선과 노동이동성·고용 임금 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논의 과제로 채택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데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사정이 비정규직 고용 규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 의제에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도 세부과제로 정해졌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근무연한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 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등도 세부 과제로 논의된다.

특위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보고받고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송주원기자 bor@

전자우편서비스로 '정부 3.0' 실현

서울지방우정청은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우정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전자우편서비스'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자우편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복지업무 우편물에 적용, 연간 약 100만통의 우편물을 자동화했다.

지난해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봉투에 출력·동봉·우편발송 하던 것을 '행복e음'에서 발송버튼만 클릭하면 우체국에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다. 특히 7월에 시행된 기초연금 안내문은 전국 복지대상자들에게 신속히 배달돼 기관 간 협업행정구현의 모범사례가 됐다.

'행복e음'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지대상자 신청,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편물 발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내용문 서식 추가, 지자체별 맞춤 안내문 첨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기덕 서울지방우정청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자동 발송할 수 있는 전자우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403@)

얼음 위 서커스 눈길

metro Russia

아이스 링크 개막 행사

얼음 위에서 신나는 서커스가 펼쳐졌다.

최근 메트로 러시아에 따르면 모스크바 굼 백화점 앞 야외 아이스링크 '굼-카토크'의 개장 행사로 소비에트 서커스단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있었다.

익살스런 광대가 얼음판 위에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등장하자 시민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어 바다사자와 곰이 얼음판에서 멋진 묘기를 부리자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광대 미하일 구스니르비치는 "공연도 하고 아이들과 스케이트도 탔다. 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며 "모두 신나게 겨울을 즐기자"고 말했다.

이날 인기 아나운서 옥사나 푸쉬키나와 유명 피겨스케이트 선수 이리나 로드니나도 굼-카토크를 찾았다.

푸쉬키나는 "매년 굼-카토크의 개장일에 이 곳에 온다"며 "아름다운 굼 백화점과 붉은광장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기분이 황홀하다"고 했다. 그는 "모스크바의 겨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이 곳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스크바에는 올해 예년보다 더 많은 야외 링크장이 문을 열어 겨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만㎡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베데엔하 링크장과 스노우볼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 있는 크라스나야 프레스냐, 아름다운 얼음 스케이팅을 선보이는 에르미타주 공원 링크장 등이 대표적이다.

/우솔리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일본 총선 레이스 스타트

선거운동 본격 돌입 · 아베노믹스 등 쟁점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가 2일 공시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 475명의 중의원이 선출된다. 전국 295개 소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씩 295명,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180명 등이다.

14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전국에서 약 1200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283개 소선거구,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9개 소선거구로 양측이 합계 292개 소선거구에 후보를 낸다.

집권 자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세배에 달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이에 야당은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해 승부수를 띄웠다.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선거구가 197곳으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의 65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경제 정책)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원전 재가동 문제 등이다. 주요 이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린 가운데 아베 정권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후쿠시마현 소마의 유세 현장에서 주먹을 높이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라운 전 英총리 은퇴

고든 브라운(63) 전 영국 총리가 정계에서 은퇴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브라운 전 총리는 내년 5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 하원의원 임기를 끝으로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라운 전 총리는 지난 9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 사태를 막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에 주변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전 총리는 1983년 총선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입성했다. 순조롭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정치적 라이벌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의 당권 경쟁에서 밀려 세 차례나 총리 연임을 지켜봤다. 그는 2007년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총리직에 올랐다. /조선미 기자

매달 신나는 파티, 실적도 '쑥쑥'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㉘

파티게임즈

'슈퍼의 엘리스', '아이러브파스타' 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회사 파티게임즈는 매달 두 차례 신다는 파티를 연다. 우선 첫째 주 금요일 점심때 '월파티'라는 이름으로 150여명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나누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입사자를 환영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사내 복지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최근에는 한 직원이 허리건강을 위해 의자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자 경영진이 전 직원의 의자를 50만원 상당의 'CEO급'으로 바꿔줘 업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월파티'·'친바' 소통 눈길
3년 10개월 만에 코스닥
고용창출 100대 기업에

◆50만원대 'CEO급' 의자 화제

매달 진행되는 '친바(친해지길 바래)' 행사도 눈길을 끈다. 인사부에서 무작위로 4~5명씩 30여 개 팀을 만들어주면 각 팀별로 한자리에 회사 지원으로 점심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선후배는 물론 다른 부서와의 소통에도 크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대형 대표 등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크다.

파티게임즈의 소통문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독서, 영화, 핸드메이드, 프라모델 등 10여개의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 직원의 70% 이상이 동호회를 통해 동료애를 키우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월 설립된 파티게임즈는 2012년 '아이러브커피'의 대박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270억4000만원, 영업이익 91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탄탄한 실력으로 비탕으로 지난달 21일에는 설립 3년 10개월 만에 코스닥에도 입성했다. 이는 모바일 업계 최단 기록이다.

박기태 인재개발실 이사는 "코스닥 상장으로 직원들의 자부심과 애사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경력직이 많은 만큼 다른 기업의 뛰어난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해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면접 당일 합격 '초스피드' 채용

실제로 파티게임즈의 복지제도는 웬만한 중견기업 못지않을 정도다. 장기근속자 리프레시 휴가제, 회사 콘도, 스쿼시, 사내 카페테리아 등 검증받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메뉴의 아침 식사는 물론 1인당 1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파티게임즈는 이직률이 낮기로 유명하다. 전체 직원의 절반 가량이 초장기 멤버일 정도다. 지난 4월에는 게임업계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놀랄 만큼 빠른 채용제도다. 서류,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면접 등으로 절차가 나눠져 있지만 빠른 경우 하루 만에 입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차 실무면접에서 실무팀장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으면 해당 일에 임원면접, 연봉협상까지 끝내고 합격까지 통보해준다. 이를 통해 매달 5~10명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박 이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계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파티게임즈 직원들이 사내 휴게실에서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런 인재를 원한다

기본기 갖췄다면 충분히 합격

"게임 산업의 트렌드는 이미 모바일이 대세입니다. 10~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올인할만 합니다."

박기태(사진) 파티게임즈 인재개발실 이사는 '수출 효자'인 게임산업에서 젊음을 불태울 많은 인재들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용제도가 매우 독특하다

▶▶매달 채용을 진행하지만 큰 채점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능력과 잠재력으로 인재를 뽑기 위해서다. 다만 기본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별 테스트는 준비한다. 개발직은 실제 프로그래밍 능력 등을, 그래픽는 디자인 실력 등을 검증한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코스닥 심사에서 개발 직군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았다.

▶채용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경력을 포장해서는 안된다. 여럿들이 공동작업 한 것을 혼자 한 것처럼 속였다가는 콤펜조회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이직의 경우에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게임업계에 입사하길 원한다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은 시간낭비다. 스스로 원하는 직무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최근 한 지원자는 파티게임즈의 게임을 만렙 찍었다고 당당히 자랑해 합격하기도 했다.

'혼밥' '밥터디' '민달팽이'

신조어로 보는 취업준비생 풍속도

'혼밥' '밥터디' '민달팽이' '공휴족'… 유행어를 보면 그 시대상이 보인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일 집계한 데이터가 신조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 풍속도를 살펴본다.

◆나홀로 학교 생활 '혼밥' '독강'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 대학 강의도 혼자 듣는 '독강' 현상이 대학가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치열한 학점 경쟁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혼자 행동하기를 자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인간관계마저 끊는 씁쓸한 구직자의 단면이다.

◆스터디의 진화 '밥터디' '출첵스터디'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뜻하는 '스터디'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각자 공부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도서관 좌석을 서로 체크하는 일명 '출첵 스터디'가 대표적 사례다. 혼자 밥 먹기가 어색한 사람끼리 밥만 같이 먹고 흩어지는 '밥터디'도 고시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취업경쟁 부작용 '스펙 증후군' '공휴족'

취업 합격선이 점점 높아지면서 '스펙 증후군'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원하는 회사와 직무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스펙을 쌓는 것이다. 토익, 학점, 자격증 등의 일반적 스펙은 화려하지만 맞춤형 취업 준비가 아니다보니 채용 중요한 합격률이 낮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한편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하는 '공휴족'도 늘고 있다. 스펙 공부를 위해 졸업을 미루고 휴학하는 '공휴족'은 대표적인 취업 트렌드다.

◆대학생도 집 구하기 전쟁 '민달팽이'

대학가 주거난으로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심각하다. 비싼 집값과 기숙사 부족 등으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은 집 없이 맴돌아 다니는 '민달팽이'로 불린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인 가구 대학생의 52%는 최소 주거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좁은 집에 거주한다. 이들 중 44%는 고시원에 산다. /정윤희기자 uniyuni@

삼성 직무적성검사

지난 10월 치러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모습 /연합뉴스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공급자 눈으로 보면 알짜기업 보인다

Q 알짜기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 알짜 중소기업을 찾으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기사를 관심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OO업계지도'라는 도서도 유용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업계에 대한 감을 잡고 해당 산업 현직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구직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업계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시장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얼마나 비전 있는 곳인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은 대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직준비생 대부분이 대기업만 고집하게 되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름도 생소하고 규모도 작았던 기업들이 선망의 기업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과거 시장을 이끌던 기업들도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니는 과거 선망 기업이었지만 오늘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젊은 날을 걸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맞는 기업은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취업단기(www.dangi.co.kr/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65.83 (+0.61)	541.53 (+2.03)	2.08 (+0.01)	1110.70 (변동없음)

기름 값 뚝뚝 2일 경기도 고양의 한 주유소 가격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휘발유를 1ℓ당 1500원대에 판매하는 국내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비 OECD 1위

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3'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55.5 달러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유선전화·인터넷·이동통신비를 더한 우리나라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기준 148.39 달러로 일본(160.52 달러), 미국(153.13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통신비 부담이 크다 보니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멕시코가 4.2%로 2위, 칠레가 4.1%로 3위를 차지했다. /이재영기자 ry34@

이재용 부회장과 불과 여섯 살 차

젊어진 삼성 사장단 60년대생 주축… 10년 전 비해 두 살 젊어

삼성그룹 사장단이 젊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존재감이 부쩍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단행한 사장단 정기인사에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임원은 총 3명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김현석 사장,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전영현 사장, 삼성전기 이윤태 사장이 주인공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신임 사장의 나이가 50대 초반이라는 점이다. 김 사장은 1961년생으로 올해 53세이고 1960년생인 전 사장과 이 사장은 54세다.

이번 인사를 주도한 이재용(사진 왼쪽) 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47세다. 새로 사장단에 합류한 '젊은 사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나이차이가 7세 안팎으로 좁혀졌다.

그룹 사장단에서 최연소인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김영기(52) 사장을 포함할 경우 격차는 더욱 줄어든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950년대 이후 출생자보다는 60년대생 사장들과 소통하기 수월할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처음 지휘한 이번 인사에서 신임 사장을 모두 60년대생으로 채운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오너가 후손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시점에는 사장단의 나이가 젊어진다. 이재용 부회장을 향후 보필할 사장단 역시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기관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번 삼성 사장단 정기인사 승진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2010년(53.6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10명이 승진한 2010년에는 유난히 발탁 인사가 많았던 만큼 사실상 올해 사장단이 가장 젊다고 볼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세 낮아졌다.

한편 그룹 사장단에서 최고령은 51년생인 최지성(63·오른쪽) 미래전략실 실장이며 52년생인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뒤를 잇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사람 알아보는 자판기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4 월드 스마트 기기 디자인 어워드'에서 관람객이 개인 인지형 스마트 자판기를 체험하고 있다. 스마트 자판기는 소비자와 스마트폰과 연동해 개인에게 맞는 광고를 보여주거나 현금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미생 장그래 딜레마

비정규직 85% "차별"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장그래) "너무 큰 기대 하지 마"(오과장)

인기 직장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는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이란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실제로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신분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비정규직 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144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신분과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불안감을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불안감'(72.5%,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정규직과의 차별로 자신감 결여'(59%), '소속감 부족'(50.6%), '노후에 대한 불안감'(40.9%), '사회적 위축'(33.6%) 순이었다.

응답자의 85.1%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차별을 느낀 순간 1위는 '연봉과 고정급 차이'(90.9%, 복수응답)였다. '복리후생 혜택'(68.1%)은 2위, '상여 등 보너스 차이'(67.8%)는 3위였다. 이밖에 '노골적 무시'(28.1%), '회사행사 참여 제한'(24.8%), '동료 불화'(10.7%) 등이 거론됐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26.1%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드러냈다.

/양윤희기자 unique@

전기차 CO_2 배출량 계산해 보니…

일반 승용차의 80% 전기 생산과정서 발생

무공해차로 알려진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의 80%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기차의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닌 국내 전력생산 과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 김희태 책임연구원은 2일 '전기차 시장 동향과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과정을 고려할 경우 국내 출시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86g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출시된 전기차의 평균연비(전력 1kWh당 평균 6km)와 발전소가 생산전력 1kWh당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443g), 송전손실(4%), 충전손실(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다.

전기차가 주행할 때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없지만,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illegible] 전기트럭에 충전하는 모습

국내 발전방식 비중은 지난해 전력거래량 기준으로 유연탄(39%), 원자력(28%), 천연가스(25%) 순이었다. 유류(3%)와 무연탄(1%)까지 고려하면 화석연료 발전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국내 출시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보통 경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 연구원은 "어떤 발전원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한국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아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더라도 큰 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illegible] 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회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독자센터	02)721-9891

2002년 5월 31일 등록 [illegible]

HYUNDAI GLOVIS
내 차 팔기, 복잡함은 끝났다
autobell
현대글로비스의 내 차 팔기 서비스
1600-0080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탄생]
차는 달라도 쉽고 간편하게 내 차 파는 방법은 하나!
지금 바로 오토벨에 전화해 보세요.
최고의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
더 좋은 가격으로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쉽고 빠른 오토벨의 내 차 팔기 프로세스
|전화|
365일 24시간 전화 접수로 더 편하게 내 차 팔기!
|컨설턴트 방문|
전문 컨설턴트 무료 출장 방문으로 믿음직한 내 차 팔기!
|현장 매입|
현장에서 즉시 매입으로 더 빠르게 내 차 팔기!
믿음직한 오토벨의 더 좋은 가격에 내 차 팔기
autobell
현대글로비스의 내 차 팔기 서비스
1600-0080

새희망홀씨 대출고객 자녀에 장학금 지원 외환은행은 2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고객 자녀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택준 지점장(왼쪽)이 화인일전으로 형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를 대신하여 김윤식 새희망홀씨 대출고객(오른쪽)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수여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큰 호응'

서민전담점포 확대·법률상담·군부대 방문 등 다양

금융권이 서민 전담 영업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지원,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카드사에서는 금융거래가 힘든 지방과 군부대 등에 이동버스를 보내 각종 금융거래와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점포를 확대 개설하고 있다.

금융 거래 취약 지역의 금융소비자 편의를 돕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 개념을 활용해 기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고객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1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움직이는 서민상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하나금융 대전희망금융플라자 전문상담사들은 서민대출부터 가계부채, 고금리대출 전환, 재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1대 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했다.

광주은행은 창립 46주년을 맞아 자체 최초의 이동식 점포인 '동네방네 찾아가는 은행'을 공개했다.

16톤 트럭을 특수 개조한 이동식 점포는 금융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금융 소외지역은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에 운영된다.

NH농협카드는 농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농업인을 위한 '이동법률 상담버스' 제작 지원에 나섰다.

군 장병 등 금융서비스 취약 지역 근로자와 서민고객을 위한 이동점포도 있다. 신한은행의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는 금융단말기와 ATM기 등이 장착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이용해 일반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병들의 개인 신용관리와 자산컨설팅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현재 서민금융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포함해 67개의 서민금융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을 기존 64곳에서 116곳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영업점과 창구 52곳은 최근 서민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점포 가운데 서민금융의 수요가 많은 성남공단, 남대문시장 등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영업점에 설치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 한번의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와 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내놨다.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에 위치한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특히 부천시 일자리센터와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참가해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이 가능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위홀딩스 등 보험료 유용 GA 4곳설계사 200명 적발

금융당국, 7개 손보사 13명 징계도 확정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손해보험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위홀딩스·글로벌금융·아이엠에스 등 GA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들 GA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유용하는데 이용되을 적게 돼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들 GA 소속 설계사들은 영업 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롯데카드, 퍼스트에셋코리아, 글로벌에셋코리아 등 3개 GA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별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신규 생·손보사 상품 판매 시 한 업체의 비율이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라이나생명보험과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생보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억300만원)의 각각 47.5%(2억8600만원), 28.5%(1억7200만원)를 판매했다. 동부화재 상품은 손보사 총액(30억610만원)의 43.2%인 13억2300만원을 모집했다.

퍼스트에셋코리아와 글로벌에셋코리아는 모두 ▲고객정보 이용 통제 적정성 제고 ▲외주업체 관리 적정성 제고 ▲대리점관리 및 비교견적 시스템 보안관리 적정성 제고 등 부분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보사 소속 설계사 13명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흥국화재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13명이 낸 보험료 4억원을 유용하다 적발됐고, LIG손보 소속 설계사는 고객의 환급보험료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 한화손보 설계사는 보험료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고객 16명의 명의를 악용해 약관대출·중도인출 등으로 6000여만원을 각각 빼돌리기도 했다.

/김형석기자 khs84@metroseoul.co.kr

'이동 푸드마켓'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신한은행은 2일 '전국 사회복지나눔 대회'에서 이동 푸드마켓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약의 이동 푸드마켓은 문 앞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식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업과 개인의 후원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류승현 사회공헌부장(왼쪽 두번째)과 직원들이 지난 1일 용산구 효창동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4년 전국 사회복지나눔 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에 문정숙 교수

문정숙(59·사진)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제5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에 선임됐다.

금소연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1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소비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초대 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재직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기본틀을 만들고, 금융시장의 관행과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금소연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대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형석기자

"신한카드, 빅데이터 경영 먹혔다"

개인고객 이용액 사상 첫 年 100조 돌파

신한카드의 개인 고객 카드이용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신한카드는 신용·체크카드를 합산한 올해 개인고객 카드이용액이 업계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 민간소비지출액인 약 700조원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신한카드는 현재 카드이용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신용카드 부문에서 84조원, 체크카드에서 16조원 기록을 예상하고 있다.

개인 고객 카드 이용액은 지난해보다 7% 성장한 것으로 체크카드는 전년보다 29% 커졌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신한카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체계를 혁신하고, 앱카드 등 신시장에 적극 대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앱카드 등 간편결제 시장에서 연간 예상취급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하고 전년대비 5배 급성장하는 등 차세대 성장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출시된 신한 앱카드의 경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회원수 227만명, 카드수 416만장, 취급액 약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내년 역시 빅데이터와 글로벌 사업, 간편결제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사업을 강화할 전략이다.

특히 올해 확보된 120만명에 달하는 코드나인 신상품 고객을 기반으로 코드나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빅데이터가 고객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코드나인 시리즈 신상품을 내년 중으로 10여개 더 출시하는 한편 주요 업종 대표기업과 제휴해 고객들에게 트렌드 코드별 소비정보와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예컨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여행지나 패션 스타일, 가구 등이 추천되는 식이다.

실제 현재 신한카드는 LF와 손잡고 고객의 의류 소비패턴을 분석해 패션스타일링 모델을 구축, 양사 온라인몰에서 맞춤형 스타일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과 시간대별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과 가맹점 간 오퍼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신입사원 전원이 핀테크와 글로벌 관련 인력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잠재유망 시장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할부금융이나 리스, 신용대출 업무 중심의 진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신기술 접목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의 모바일카드 결제 편리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성호(사진) 신한카드 사장은 "개인 카드이용액 100조원 돌파는 영업 경쟁력과 규모에 걸맞은 IT와 리스크 관리 등 고도화된 내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해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채명환기자 sl se0203@metroseoul.co.kr

온라인 보험 '하나 Life' 출범 하나생명은 지난 1일 온라인보험 브랜드인 '하나 Life'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근수 하나생명 부사장, 방윤학 하나아이앤에스 부사장, 김인환 하나생명 대표이사, 박재진 미래사업팀장, 한준성 하나금융지주 상무, 최창식 하나생명 부사장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하나생명 제공

대우증권, ELS 등 13종 판매

KDB대우증권은 2일부터 ELS 7종과 ELB 1종, DLS 5종 등 13종의 상품을 총 13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제12145회 KOSPI 200-HSCEI-EuroStoxx50 리챙제 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9.8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9.80%의 수익을 지급한다.

'제1965회 중국교통은행 신용사건연계 DLS'는 약 3개월(94일) 만기 상품이다.

투자 기간 중 중국교통은행의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2.40%의 수익을 지급한다.

ELS·ELB의 경우 오는 4일까지, DLS는 5일 오전 11시까지 판매된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차현정기자 hjkim@

우리은행장 후보 이광구 부행장 등 3명

5일 심층면접 후 9일 최종 확정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에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3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2일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부행장과 이동건 수석부행장, 정화영 중국법인장 등 3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당초 유력 후보 중 한명이던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은 지난 1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또다른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온 이 부행장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천안고와 서강대(경영)를 졸업한 이 부행장은 1979년 상업은행 입행으로 금융권에 첫 발을 들인 후 우리은행 홍콩지점장과 개인영업전략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등을 거쳤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건 수석부행장, 이광구 부행장, 정화영 중국법인장

그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 멤버로 뒤늦게 유력 주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내정설 등 서금회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최종 행장 선임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행추위는 오는 5일 3차 회의를 소집해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9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행장으로 선임되려면 행추위에서 변수들 넘는 4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우리은행은 30일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을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채명환기자

"연말 쇼핑은 M포인트로"

현대카드 '50% M포인트 스페셜' 이벤트

현대카드가 연말을 맞아 할인과 포인트 결제 등 파격적인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2일 현대카드는 온·오프라인 주요 쇼핑몰에서 구매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50% M포인트 Special-쇼핑'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M포인트란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3.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번 행사는 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쇼핑 주간에는 G마켓(12/8~9), 티켓몬스터(12/10~12/17), 모바일 11번가(12/11~12), 신세계몰·이마트몰(12/13~14), CJ몰(12/15~16), 그리고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12/17~19)과 롯데홈쇼핑(12/19~21 TV상품)이 순차적으로 참가한다.

이 가운데 G마켓, 티켓몬스터, 모바일 11번가, 신세계몰/이마트몰과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결제 건당 3만 M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쇼핑 주간인 18일부터 25일까지는 홈플러스, GS수퍼마켓, CU에서 50% M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홈플러스와 GS수퍼마켓에서는 1일 1회 최고 3만 M포인트까지 쇼핑금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CJ몰과 롯데홈쇼핑, CU에서는 사용 제한 없이 50% M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쿠폰과 청구할인을 포함한 추가 혜택도 있다.

모바일앱에서 2만원 이상을 결제한 G마켓 이용고객에겐 20%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준다. 티켓몬스터에서는 4만원 할인쿠폰(20만원 이상 결제 시)이 주어진다. /채명환기자

쌍용건설 인수 '4파전' 확정

이달 중순 본입찰 예정

이달 중순 이후 본입찰이 시작될 예정인 쌍용건설 인수전이 '4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예비 입찰 참가자 중 외국계 펀드 2곳이 포함돼 있어 쌍용건설이 외국 자본에 팔릴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매각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실시한 예비입찰에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 7곳 가운데 2개의 외국계 펀드와 2개의 국내 기업 등 4곳을 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외국계 펀드는 중동 두바이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사모펀드(PEF)가 각각 인수 의사를 밝혔고, 국내 기업으로는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스틸앤리소시즈가 참여해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두바이 국부펀드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에 이은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펀드로,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갖춘 것은 물론 펀드가 투자하는 자체 발주 공사 물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건설사의 중동 건설공사 수주와 중동계 펀드와의 공동 사업이 확대되면서 한국 건설사 인수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 펀드는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등 고급 건축물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실력을 검증 받았고,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싱가포르 정부의 발주기관의 유력인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 등이 인수전에 뛰어든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라마이더스 그룹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그동안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워왔으며 현재 SM(남선알미늄), 우방건설, 경남모직, 벡셀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옛 동양그룹의 핵심 회사인 동양생명과학을 인수하기도 했다.

SM그룹이 쌍용건설을 인수할 경우 종전 국내 소규모 위주의 공사에서 국내외 대형 공사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철 스크랩 가공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최근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미국계 펀드로부터 40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사는 지난달 인수적격후보로 선정된 뒤 현재 쌍용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쌍용건설 매각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과 예일회계법인은 이달 중순께 실사가 완료되면 중순 이후 본입찰을 시작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밀실사와 최종 가격협상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적격후보 4곳 가운데 일부는 실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금마련에 실패할 경우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19위 업체인 쌍용건설의 인수 예상 가격은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해외 공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수주에도 성공하는 등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건설사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매각 성공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쌍용건설 역시 이번 매각이 성공하지 못하면 회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쌍용건설이 매각에 성공하면 지난 10월 EG건설에 팔린 동양건설산업에 이어 10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두번째로 인수합병에 성공한 회사가 된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포르쉐 뉴 카이엔, 3종 출시

퍼포먼스-스타트 눈길

포르쉐 코리아가 2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뉴 카이엔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라인업은 카이엔 터보, 카이엔 S, 카이엔 S 디젤 등 3종류다.

뉴 카이엔은 낮아진 차체 디자인을 강조했다. 보닛은 더욱 넓어졌으며, 구형보다 중앙 공기 흡입구가 작아졌다. 두 개의 외부 공기 흡입구는 바깥쪽으로 밀어냈다. 앞 측면에 위치한 에어 블레이드는 냉각된 공기를 인터쿨러로 전달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다. 바이제논 헤드램프는 S모델의 기본 사양으로, 포르쉐 특유의 호버링 4포인트 LED 주간 주행등을 탑재했다. 터보 모델은 포르쉐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PDLS)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됐다.

후면 디자인도 새로워졌다. 리어램프는 입체적인 느낌을 주며 브레이크 등은 프런트 LED 주간 주행등과 유사하게 디자인됐다. 새로워진 배기관은 후면 하단부에 통합됐다.

다양한 장비도 기본 사양이다. 자동 개폐식 트렁크, 시프트 패들을 포함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 스텝,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TPM)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이 모두 기본이다. 에어 서스펜션은 카이엔 터보에 기본이고, 다른 모델에는 옵션이다.

카이엔의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는 새로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함께 작동된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카이엔 최초의 퍼포먼스-스타트 기능을 제공한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동시에 밟으면 엔진 속도는 증가하고 팁트로닉 S 변속기는 1~2단과 2~3단 변속을 최적화한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하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0.1초 더 빠르다.

/이정하기자 ferrari59@

2일 공개된 포르쉐 뉴 카이엔

한화그룹, 점자달력 5만부 무료 배포 한화그룹은 2015년 점자달력 5만 부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기관과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한다. 한화그룹은 도움을 호소하던 시각장애인의 사연을 전한 김승연 회장의 아이디어로 2000년부터 점자달력을 제작해 왔다. /한화그룹 제공

주상복합 전성시대… 예전 명성 되찾나

단점 개선하고 장점 극대화하면서 점차 인기

힐스테이트 광교,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연말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들 단지의 공통점은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데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주목을 거듭하던 주상복합이 올 들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대형 일색이던 주택형은 중소형 위주로 변경해 분양가를 내리고, 데드스페이스(dead-space)가 많아 선호도가 떨어지는 타워형 평면을 채광·통풍 등에 유리한 판상형으로 바꾸는 등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주상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특히 주거동과 상업 업무동을 분리함으로써 주상복합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던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관리비 부담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분리된 상가는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카림 애비뉴' 처럼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힐스테이트 광교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대엔지니어링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힐스테이트 광교'는 주거와 상업시설을 분리해 주거 쾌적성을 최대화하고 대부분의 세대를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또 전용률을 일반아파트와 비슷한 74~76% 수준까지 끌어올려 70% 미만이었던 과거 주상복합보다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아직 청약 전임에도 벌써부터 20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27일 호반건설이 견본주택을 공개한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전 세대를 4-bay(방+거실+방+방)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판교의 명물로 꼽히는 '아브뉴프랑' 상업시설을 광명에도 입점시키기로 해 주상복합의 가장 큰 강점인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각각의 장점을 적용한 것이다.

이달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키로 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위례 마트리레 푸르지오' 역시 주거동과 상가동을 분리하되 상가동은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트리트몰로 구성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겨울철 공기 관리 가전시장 뜨겁다

신제품 출시, 할인 이벤트 등 마케팅 본격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가습기 등 공기 관리 가전 시장에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됐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공기 관리 가전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업체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LG전자는 신제품 에어워셔와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는 등 공기 관리 가전 라인업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알프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성인 여성 평균키를 감안해 제품 높이를 77.9cm로 높여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디스플레이 버튼부 조작이 가능하도록 긴 원통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원통형 디자인과 고성능 구현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토네이도 터보팬'은 아래쪽에서 바람을 강력하게 흡입한 후 제품 위쪽으로 멀리 보내 실내 공간 전체를 골고루 정화한다. 특히 필터교체, 세척 등 정기적인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 '에어샵'을 앞세워 국내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스웨덴 공기청정기 업체 블루에어는 2일 공기청정기 신제품 '블루에어 E 시리즈' 3종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신제품은 공기의 질을 수시로 감지해 공기청정 속도를 조절하는 전자센서 기능과 원격제어 리모컨, 필터 교환 시기 알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예날 조나스 홀스트 블루에어 인터내셔널 세일즈 매니저는 "한국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에서 성공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블루에어는 코스모앤컴퍼니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백화점, 온라인 외에 새로운 유통 채널 확대를 통해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한 업체들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015년형 에어워셔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한 벤타코리아는 벤타 에어워셔와 보네이도 공기순환기로 구성된 패키지를 할인 구매할 수 있는 7만원 상당의 쿠폰을 7일까지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증정한다. 위닉스는 31일까지 에어워셔와 공기청정기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 대상 품목에는 최근 선보인 에어워셔 신제품 '숨'과 '숨 에어'가 포함됐다.

/정은미기자 hluee@@metroseoul.co.kr

블루에어 450E /블루에어 제공

LG전자 공기청정기 알프스 /LG전자 제공

소니코리아 'A7Ⅱ' 출시 2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에서 소니코리아 모델들이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Ⅱ'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쿠쿠전자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

호치민 이어 하노이 까지 브랜드숍 오픈

쿠쿠전자가 베트남 주요도시에 유통채널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쿠쿠전자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 쿠쿠브랜드숍 2호점인 '하노이 중화점'을 개점했다고 2일 밝혔다.

하노이 중화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이자 행정, 상공업, 문화, 교육 관련 사업이 밀집한 중심지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지난 7월 호치민 푸미흥에 연 1호점이 큰 호응을 얻으며 이번에 신규매장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구쿠전자는 2호점 개점과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TV 광고, 매거진, SNS, 쿠킹클래스, 할인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쿠쿠전자 해외영업팀 관계자는 "베트남 주요도시에서 유통채널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며 "쿠쿠의 강점인 제품의 품질과 기술 그리고 쿠쿠만의 현지화전략을 통해 베트남에서도 쿠쿠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쿠전자는 지난 7월 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에 첫번째 브랜드숍(직영점)을 오픈해 주목받았다. 매장에서는 프리미엄 전기압력밥솥, 전기그릴, 정수기 등 쿠쿠 제품만을 판매한다.

/양성운기자 ysw@

베트남 쿠쿠 브랜드숍 하노이2호점 오픈식

165조 투입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지역발전5개년 계획 주요내용

5대 분야 165조원

정부가 200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해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2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액도 286조원을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illegible]%) 등의 재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소요 재원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가 89조6000억원(54.2%)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37조7000억원(22.8%), 지역문화 융성이 15조6000억원(9.5%)이다. 또 복지의료체계 개선에 13조9000억원(8.4%), 교육여건 개선에 8조4000억원(5.1%)이 소요된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 증가한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 80.5%까지 높아지고,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이 20%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차원에서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개가 신설되고, 투자선도지구 14개가 새로 지정된다. 25개 산업단지가 리모델링되는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개선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교 60개를 육성하고 행복학습센터 200여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평생학습체제도 구축된다.

지역문화 부문에선 2016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은 현재 36개에서 2018년 160개로, 작은 영화관은 22개에서 91개로 확충된다.

복지·의료 부문은 지역 복지체계 구축과 생활 의료 기반 마련을 목표로 거점의료기관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재근기자 lesan@

'드라큘라의 성'으로 놀러 오세요

루마니아 귀족 후손 古城 되찾아 …무도회·결혼식 등 열어 관광객 유치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루마니아의 현대판 성주들이 '드라큘라의 성'을 꿈꾸며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중부 트란실바니아에는 100여 개의 고성이 있다. 드라큘라의 성으로 유명한 브란 성이 대표 격이다. 브란 성은 흡혈귀 소설 '드라큘라'의 배경이 된 곳으로 알려지면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50만 명이 브란 성을 찾는다. 1212년 세워진 성의 시가는 1억 4000만 달러(약 1552억원)로 알려져 있다. 트란실바니아의 성주들은 '제2의 브란 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성은 수백 년간 지역 귀족이 소유했지만 1948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정부에 압수됐다. 최근 많은 귀족 가문의 후손들은 소송으로 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빼앗겼던 성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가족의 재산을 찾은 성주들은 빚쟁이가 됐다. 소송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고성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칼만 벨레키의 가족은 성을 빼앗긴 뒤 19년간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았다. 그는 82년에 루마니아를 떠나 벨기에로 갔다. 3년 전 가족이 성을 되찾은 뒤 모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족은 성을 찾기 위해 소송비로 2만 유로(약 2740만원)를 썼다.

벨레키는 "성대한 무도회와 결혼식, 콘서트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21세기에 이런 고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 매주 이벤트를 하나씩 진행하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성 지키기에 색달라며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며 "정부도 도로 포장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레고르 로이 조드허리는 10년 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성을 되찾았다. 자발라 마을에 있는 그의 성은 공산 정권 시절 정신 병원으로 사용됐다. 조드허리는 성지의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소유권을 인정 받았다.

조드허리는 성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다. 그는 현재 방이 10개인데 내년에는 2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드허리의 성을 찾는 사람은 연간 2000여 명이다.

'사이버먼데이' 대전 돌입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 최대 90%↓

미국 유통업계가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대전에 돌입했다.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서 남은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1일(현지시간) LA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이 8일까지 '사이버 먼데이 딜스 위크'(Cyber Monday Deals Week)를 진행한다. 컴퓨터 전자기기 등 10년 미만 새로 업데이트한 상품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콜스도 8일까지 '사이버 주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했다. LG전자 49인치 LED HD TV를 399.99달러(약 44만3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할인율이 90%에 육박한다.

월마트도 컴퓨터나 컴퓨터 주변제품을 평균 36%,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파격적인 행사를 이날 진행했다.

대형 소매업체들이 파격적인 사이버 먼데이 할인에 나선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실적이 기대치에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소매연합이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주말까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 매출을 조사한 결과, 509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의 574억 달러보다 11% 줄어든 수치다.

한편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이 끝난 뒤 돌아오는 첫 번째 월요일에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다. 실제로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1억3100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에 9200만 명, 추수감사절에 4500만 명이 쇼핑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이국명기자

로봇 일꾼 바쁘다 바빠~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물류 창고에서 1일(현지시간) 아동용 로봇이 물품을 담은 대형 수직 선반을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이애나 드레스 얼마?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줄리엔스 옥션 갤러리에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오는 5~6일 이 곳에서 다이애나비가 생전에 입었던 드레스와 애장품의 경매가 부쳐진다. /AFP 연합뉴스

신용 강등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고

일본 내 비판 쏟아져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하자 이같은 분석이 일본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신용등급인 A1은 한국보다 낮고 오만, 체코와 같다"며 "최근 드러난 경제 지표나 아베 내각의 의사 결정 등으로 미뤄볼 때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는 아베노믹스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아베 내각이 경기를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세를 인상으로 재정 목표 달성을 도모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장담했는데 최근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화 약세에 직한 비판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엔화 약세로 인한 국부유출이 7~9월에만 24조 엔(약 224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엔화 약세 정책은 일본 주요기업들이 생산 시설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철 지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붙었다"며 "이미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2014년 12월,
칸 영화제가 선택한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영화!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튜어트
클로이 모레츠
HOT ISSUE
특급 배우 김희애, 예고편 내레이션
그녀가 극찬한 은막 뒤 여배우들의 진짜 이야기!
제67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노미네이트
전세계 언론과 평단의 쏟아지는 찬사!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여배우의 눈부신 연기 대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녀〉를 잇는
2014년 마지막 아트버스터!
알프스 실스마리아의 아름다운 영상미!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매혹적인 OST!
것이 공존하는 그녀들의 무대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작품
15세 이상 관람가
12월 18일 대개봉

새로 나온 책

신사용품
어반/미디어윌

스스로를 '옷쟁이'라고 칭할 만큼 옷을 사랑하는 저자 남훈이 진정한 신사의 물건들을 소개했다. 네이버 블로그 'The Sound Store'를 운영하며 '한국신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그는 다년간 패션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옷부터 신발, 작은 액세서리까지 자신이 직접 오랜 시간 써보고 검증된 아이템들을 알려준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헨리 뢰디거/와이즈베리

일반인들의 직관과 정반대인 연구결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독보적 실력의 신경외과 의사, 미식축구 챔피언 팀 코치, 꼴찌에서 일등이 된 의대생까지 생생한 사례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습법을 소개한다.

나의 꿈 사용법
고혜경/한겨레출판

현대인들에게 꿈은 여전히 비과학, 혹은 미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꿈은 안전하게 무의식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저자는 꿈에 대한 다양한 종류뿐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모습, 문화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한다.

블루리본서베이 2015 서울의 맛집
블루리본 서베이/비비미디어

독자 2만4407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독자 점수를 토대로 블루리본 기사단이 리본 3개의 최고의 레스토랑을 선정했다. 리본 3개를 받은 곳은 브랜지든 전공한 서심호 총주방장과 엄정탁 셰프가 새로운 차원의 한식을 선보이는 '라연', 이재훈 셰프의 합류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렌치를 선보이는 '르 레드고몽' 이다.

1등 기업의 광고 2등 기업의 광고
허수원/흐르는책

20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광고를 만들고 이를 광고인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저자가 실제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준다. 또 상품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캠페인을 하는 광고, 매번 화제를 몰고 오는 광고 등 소비자에게 친숙한 광고를 통해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안내한다.

/박지원기자 ssw@

우리가 몰랐던 음식 이야기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윤덕노/깊은 나무

이 책은 음식의 유래와 문화·역사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100가지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있다.

누구나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솔 푸드(soul food)가 있을 것이다. 소풍날 엄마가 싸주신 김밥, 초등학교 입학식 날 먹은 짜장면 등과 같이 스토리가 있는 음식은 아련한 추억과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즐겨 먹으면서도 미처 몰랐던 음식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준다.

돌잔날 팥죽을 먹는 진짜 이유, 잔칫날 국수를 먹는 까닭,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 손님 접대 음식으로 물만밥을 내놓는 사연, 칡뿌리를 먹게 된 것 한명회 덕분이라는 사실, 50년 전만 해도 돼지고기를 구워 먹지도 않았고, 삼겹살 이라는 말도 없었다는 것, 부대찌개와 카르보나라의 놀랍도록 비슷한 탄생 배경 등 책에서 소개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선조들의 삶과 문화, 지혜와 슬기, 낭만과 애환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유명 인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알면 음식을 인문학적으로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석류와 양귀비의 관계를 알고 나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노래 공고기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음식에 스토리를 엮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상식을 넓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여행의 진정한 의미

기찻길 옆에 줄줄이 늘어선 레스토랑과 숙소 주인들의 호객행위는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말이다. 하지만 여행은 우리의 태연가지로 이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왔다. 또 다른 우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여행이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든다. - '언젠가는 제주'(이수호/리스컴) 중 -

/황재용기자 hanul38@

인터파크 도서, '골든북 어워즈' 개최

인터파크도서가 올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책과 작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4 골든북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상 부문은 골든북 1권, 올해의 작가 1권, 분야 올해의 책 8권 총 3개 부문이다. '골든북'과 '올해의 작가'는 오는 21일까지 인터파크 독자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골든북은 순수 판매량으로 집계되는 인터파크도서 랭킹에서 지난 1년간 주간 랭킹 1위에 올랐던 도서 13권이 후보로 선정됐다. 독자투표(50%)와 판매량(50%)을 합산해 최종 1권이 선정된다.

올해의 작가는 최근 1년간 인터파크 주간 작가 랭킹에서 1위에 올랐던 작가 11명이 후보로 올랐다. 독자투표(50%)와 판매량(50%)을 합산해 최종 1명에 시상한다.

또 분야별 올해의 책은 ▲문학 ▲에세이 ▲인문교양 ▲시 기계발 ▲어린이·청소년 ▲실용 ▲외국도서 ▲e Book 등 8개 각 부문 100% 판매량 기준으로 선정한다.

골든북과 올해의 작가 투표는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골든북의 경우 명동 북파크에서도 가능하다. 명동 북파크 투표소는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김수정기자

교보문고, '광화문 목요 낭독 공감' 개최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은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아카데미에서 한국문예창작학회·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한국작가회의 등 문학단체와 함께 '광화문 목요 낭독 공감'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며 '책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진행한다.

/김수정기자

홍보란 무엇인가?

화제의 책

홍보의 신
손용석 외/새록돌고기

홍보통들의 생생한 뒷담화

이 책은 언론 홍보에 대한 이론서나 실용서가 아니다. 식 음료를 포함한 유통, 레저와 호텔, IT와 중공업 등 각 분야의 홍보통 17인이 느끼고 경험한 홍보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홍보를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많은 홍보 사례와 누구나 가볍게 읽으면서 재미를 느낄 에피소드는 물론 이들이 정성과 시간을 들여 갈고 닦은 홍보 노하우와 저절로 몸에 밴 추진력과 창의력 등이 담겨 있다.

또 홍보로 흥리을 친 그들의 활약상은 어떤 무용담보다도 흥미진진하다. 어느 이론서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그들만의 능력도 소개된다. 이들 모두가 고객의 소리도 기자의 날 선 비판도 조용히 듣고 용대하고 수용할 줄 안다는 말이다.

특히 이들은 PR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언론 홍보에서 시작해 행사 연설문 작성, 외부 봉사 활동 등에 이르는 포괄적인 업무가 모두 PR이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홍보인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요즘과 같은 언론 춘추전국시대에는 다재다능함마저 필요하다고 한다.

'소통의 달인' 17인이 털어놓는 진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두 살 부터는 '2% 저지방 우유' 권장

지방 절반, 칼슘 두배… '입맛·영양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

과거 엄마들은 '아이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해',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고 생각 했었다. 하지만 요즘 육아맘들은 소아비만에 대한 걱정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고민한다. 소아비만은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섭취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우유에 지방이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의 보고'인 우유를 단지 지방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유 속 지방 섭취가 걱정된다면 저지방 우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 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꿀 경우 약 50%의 지방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일반 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비만 때문이 아니라 하루 동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매일우유가 신제품인 '저지방&고칼슘 2%'의 시음 행사를 펼치고 있다. /매일우유 제공

이런 가운데 성장기 아이가 저지방 우유를 마셔도 될지, 저지방에도 영양소가 풍부할지 등에 고민을 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2세 이전에는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우유를 하루 2컵(500㎖) 가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반면 만 2세부터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유제품을 저지방으로 바꿔 섭취하는 것을 권장했다.

특히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아이 영양 가이드'와 캐나다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Canada's food guide', 호주의 '영아 영양' 등의 일관된 지침은 ▲유제품의 섭취는 꾸준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지방 제한보다는 두뇌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지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지방 우유 중에서도 2% 저지방 우유를 주보 식단으로 권장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 저지방 우유가 주요 제품으로 자리잡았으며 현재 2% 저지방 우유가 전체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매일우유가 '저지방&고칼슘 2%'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로 높여(200㎖당 440㎎) 2잔으로 성인의 일일 평균 칼슘 권장량인 700~1000㎎, 유아동 500~700㎎를(2005년 한국영양학회, '영양권장기준 개정-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거의 채울 수 있어 영양에 대한 걱정까지 없애준다.

이 회사는 '저지방&고칼슘 2%' 제품을 선보이면서 무지방(0%)부터 저지방(1%, 2%), 오리지널(4%)까지 세분화된 백색우유 라인을 완성시켰다.

게다가 일반적인 저지방 우유의 경우 원유의 유당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줄어들기 쉬운데, 신제품 '저지방&고칼슘 2%'는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우유 관계자는 "신제품 '저지방&고칼슘 2%'는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로 높여 우유 2잔만으로 하루 권장 칼슘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영양이 가득해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웰빙 실조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우유를 꼭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맛으로 인해 우유를 거부하면 큰일인데 맛까지 충족시켜 저지방 우유를 시작하는 만 2세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모두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일기자 cmsl@metroseoul.co.kr

"연말연시 문화공연 공짜로 즐기세요~"

'강강술래' 뮤지컬·연극 티켓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티켓로운 문화공연 선물을 마련했다.

강강술래는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문화경품 이벤트에 신청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와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공연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앙코르 공연되는 '조로'는 리부트(시리즈)의 이야기를 재탄생부터 새로 만드는 것과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와 흥겨운 선율, 스릴 넘치는 검술과 스턴트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랑이다.

이 공연은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적인 플라멩코와 집시들의 축제를 보여준다. 360도 회전 무대 위 11m 대륙횡단 열차 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은 영화 이상의 스펙터클함을 선사한다. 양요섭, 키, 소냐, 휘성, 서지영 등 실력파 배우들의 향연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학로 예술공간 유비누리 엠질 전용관에서 공연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사랑을 만들어 주는 언어컴퍼니를 배경으로 주인공에 2년간의 짝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다.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한 작품답게 재치와 폭소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전반에 배치돼 있어 공연을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어 작품성은 물론 재미까지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전경일기자

'미생' '식객' 상품 팔아요

만화 콘텐츠 개발·장수 캐릭터 인기

유통 업계가 캐릭터 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중화된 인기 캐릭터를 제품에 도입하면서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웹툰 만화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재조명 받자 유통 업계가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NS홈쇼핑은 '만화 식객'의 라이센스 제휴업체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식객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식객 채널 음식판'에 운영된다. 만화와 접목한 제품정보·유통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지 체험 관광, 만화에 등장하는 맛 집을 모은 테마 식당기, 식객존 상품권, 식객 요리 체험 스쿨 등 특화된 무형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GS25는 미생 캐릭터를 이용한 먹주컵·종이컵 등 4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매출이 신장하는 등 미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드라마가 첫 방영된 후 약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8.9% 증가했다.

캐릭터를 이용해 키덜트족(Kid+Adult)을 공략하는 업계도 있다.

이로마리즈는 헬로키티와 컬레버레이션을 통해 '헬로키티 아로마 디퓨저'를 출시했다. '레드봄봄 헬로키티', '레몬에이드 헬로키티', '스

프링왈츠 헬로키티', '프렌치드림 헬로키티' 등 헬로키티 캐릭터 모양의 유리용기에 담긴 4종의 상품을 선보였다.

/김수정기자 ksj0215@

쑥쑥 크는 홈쇼핑 모바일

'제자리 걸음' TV 매출, 대안으로 떠올라

모바일 시장을 두고 홈쇼핑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황에 TV 채널 매출마저 꺾이면서 그 대안으로 '모바일'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홈쇼핑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모바일 매출이 많게는 세 자릿수까지 올랐다.

GS홈쇼핑은 모바일 취급액이 186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7% 성장했으며 3분기까지 누적 신장률도 191.7%를 기록했다. CJ오쇼핑에서는 3분기 누적 모

바일 취급고 비중(19%)이 TV(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대홈쇼핑도 올 3분기까지 모바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7.3% 뛰었다.

이에 업계가 사업 역량을 모바일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GS홈쇼핑은 생방송 중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다. ARS 서비스도 모바일에 최적화해 '보이는 자동주문 서비스' 등 추가했다.

CJ오쇼핑은 취과 모바일 동기화와 개인화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모바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앱 '바로 TV'를 론칭했다. 현대홈쇼핑은 쇼핑 채널 일체화를 위해 PC에서 진행되는 기획전·프로모션 등 핵심 콘텐츠를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고 상품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꿀사과' 먹으러 오실래요~

밀양얼음골 사과축제, 6~7일 서울 청계천에서 열려

전국 최고의 '꿀사과'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회장 정병수)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청계천 일원에서 '제17회 밀양얼음골사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밀양이 좋다! 밀양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소비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지리적 표시 제24호로 지정돼 정부가 인정한 지역 명품인 얼음골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얼음골사과는 삼복더위에도 얼음이 얼고 밤낮의 온도차가 뚜렷하며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사과로 당도가 높고 씹는 맛과 향기가 좋아 '꿀사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 밀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12회 서울에서 진행된 이후 두 번째로 협의회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품질 좋은 사과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 첫 날인 6일에는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등과 함께 얼음골사과 깜짝 경매와 관람객 나눔 이벤트가 열린다. 이어 감내게줄당기기와 얼음골사과 요리 경연대회, 밀양 법흥상원놀이와 밀양백중놀이 시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밀양아리랑과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공연 등이 준비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다음 날인 7일에도 얼음골사과 깜짝 경매와 나눔 이벤트가 진행되고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게다가 ▲으뜸사과전시관 ▲우수재배전시관 ▲사과품종전시관 등와 얼음골사과홍보관이 마련돼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밀양 특산물 판매장과 얼음골사과 판매장 등에서는 저렴하게 사과 등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정병수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명품 얼음골사과를 사랑해준 국민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최고의 사과로 고객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문의 055)356-6458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통기성 뛰어난 내의 에잇세컨즈 원더웜

제일모직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원더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원더웜'을 선보인다.

천연 목재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즈로 만든 식물성 섬유 '텐셀'을 사용해 수분 함유량과 통기성이 뛰어나 정전기가 일지 않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또 흡습 발열 소재인 웜 프레쉬가 몸 안팎의 수분을 흡수 발열 작용을 일으켜 원단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긴팔·터틀넥 티셔츠 탱크톱·타이즈 등으로 출시됐다. /서지연기자

군살 잡아주고 뒤태 살리고… 검정 스타킹도 기능성 바람

겨울 들어 압박·힙업 제품 잘팔려

여성들의 겨울 필수품인 '검정 스타킹'에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다. 겨울 타이즈에서 강화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추운 날씨에 대비한 보온성과 슬림한 각선미를 위한 압박 기능이다.

남영비비안이 이번 시즌 출시한 타이즈 중 보온성 또는 압박 기능을 활용한 제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올해는 기모보다 보온성이 높은 울·폴리에스터(수면 원사)를 사용한 타이즈와 레깅스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포근한 감촉의 울 원단을 사용한 자마 레깅스는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 겨울 타이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압박 기능'이다.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는 만큼 다리가 굵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는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비비안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각선미뿐 아니라 힙업까지 신경 쓴 기능성 타이즈도 등장했다. 엉덩이 아래쪽에 잘 늘어나지 않는 촘촘한 원단을 사용해 아래로 처지기 쉬운 엉덩이를 받쳐 힙업 효과를 낸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타이즈에 패션성을 부각시킨 제품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기능성을 추가한 무늬 없는 민자 타이즈가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연기자 srs@

metro entertainment

"제 연기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곧 행복"

김상경 코믹 연기로 스크린·안방 사로잡다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백수 아빠로 코믹 변신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는 엉뚱한 재벌 2세 역
"대중 곁에 늘 함께 있는 편안한 배우로 남고 싶어요"

김상경(42)이 재미있어졌다. 물론 그의 연기 변신은 처음이 아니다. 데뷔 초반 검사, 변호사 등 엘리트 역할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2002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으로 찌질한 지식인 캐릭터로 변신해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그 이후로도 김상경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진지함과 가벼움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친근함으로 대중과 만났다.

그러나 최근 김상경의 연기 변신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코믹함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30%대 시청률로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는 재벌 2세지만 엉뚱한 면이 있는 문태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지난달 20일 개봉한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서는 졸지에 '렌탈 아빠'가 된 왕년의 대 줄신 백수 태만 역을 맡아 코믹 연기에 몸을 내던졌다. 촬영 시기로 본다면 지난해 11월 촬영을 마친 '아빠를 빌려드립니다'가 김상경의 코믹 변신을 알리는 첫 작품이다.

한 동안 진지하고 무거운 역할을 주로 맡아온 김상경이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와 '가족끼리 왜 이래'로 한결 힘을 뺀 편안한 연기를 보여주게 된 것은 연기에 대한 강박을 털어낸 결과다.

"늘 새로운 표현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작품은 물론이고 남들이 나온 작품도 보지 않았죠. 편한 연기란 할까봐 모니터도 보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강박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다른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도 가능하면 많이 찾아보는 편이죠."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10년째 백수 생활 중인 아빠를 보다 못한 딸이 학교 나눔의 날에 아빠를 내놓으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소동을 그린 영화다. 독특한 소재로 화제가 됐던 홍부용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작품 선정에 있어 시나리오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김상경은 지금까지 안 해본 코미디 영화이자 가족영화라는 점에 끌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를 선택했다. 평소 성격도 밝고 유쾌한 편이라는 그에게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웃음과 감동이 잘 섞여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일이 없을 때는 백수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배우라는 직업도 태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전작 '몽타주'에서 연기한 형사를 떠올리면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의 태만은 예상 밖의 변신이다. 딸의 저금통에서 몰래 빼낸 돈에 기뻐하는 철없는 아빠 태만은 과장된 표정과 몸짓을 많이 보여주는, 기존에 김상경이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점이 많은 캐릭터다.

"영화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과장된 표정이 많죠. 연극의 역사를 봐도 희극에는 과장된 표현과 몸짓의 전통이 있거든요. 촬영할 때는 감독님만 믿고 마음껏 확져서 후회 없이 연기했어요."

영화는 '렌탈 아빠'가 된 태만이 아빠를 필요로 하는 여러 인물을 만나면서 겪는 에피소드들, 그로 인해 생겨나는 태만 가족의 갈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아버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게 됐다. 김상경은 "태만의 딸이 아빠에게 '자신과 놀아주던 백수 시절이 좋았다'며 우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배우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아이와 기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상경에게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와 '가족끼리 왜 이래'는 대중에게 유쾌함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끄트머리에서 자신의 연기로 많은 이들이 웃을 수 있다는 점에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있던 제 밝은 모습을 연기로 보여준 건데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시니 기쁘죠."

내년에는 이미 촬영을 마친 스릴러 영화 '살인의뢰'로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김상경은 "앞으로 진지한 작품과 코믹한 작품의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껏 그래왔듯 늘 편안하고 친숙한 연기로 대중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대중과 거리감 있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들 곁에 늘 같이 있는 배우이고 싶죠. 제 연기를 생활처럼 느껴주면 좋겠고요. 저는 영화 속에서는 영화배우이길 바라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이민주(타운드웨이뿔) 디자인/박은지

드라마 '흥행 열쇠'는 부제목?

명사형·문장형 등 드라마 특색 맞게 구성
"시청자 중간 유입 쉬워… SNS 홍보 효과↑"

'10%만 넘겨도 성공'이라는 업계의 말이 있을 정도로 최근 지상파 드라마는 시청률 가뭄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10% 이상 시청률을 내고 있는 '피노키오', '오만과 편견', '미스터 백'은 방송 시작 전 그날의 방송 내용과 관련된 부제를 제시하는 공통적인 연출로 시선을 끈다.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는 '눈의 여왕', '15소년표류기',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간결한 부제목으로 궁금증을 자극한다. 매회 한 가지 주제를 뽑아내고 판피가 끝나며 부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피노키오' 조수원PD·박혜련 작가가 함께 만든 전작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에도 부제가 있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당시 동시간대 시청률 꼴찌에서 시작해 20% 이상 시청률로 종영하며 웰메이드 드라마로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조수원·박혜련 콤비의 작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흥행하면서 드라마의 부제가 '성공의 열쇠'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과 수목드라마 '미스터 백'은 문장형 부제를 추구했다. 간단한 부제보다는 호기심이 덜하지만 특색 있는 드라마 장르와 잘 조화된다는 평가다.

'오만과 편견'의 경우 '독한 거니 미친 거니?', '왜 죽이려 했을까 하필 어린아이를?', '조건이 있습니다' 처럼 의문을 품는 듯한 제목으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검사 이야기를 더 두드러지게 한다. '미스터 백'은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된 웹소설 '올드맨'이 원작이다. '혹시 저 좋아하세요?', '푸른 하늘 따라 은하수한테 가볼까' 하는데 등 문장형 부제는 소설 원작 드라마라는 점에서 책의 한 챕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같은 부제의 효과는 앞서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에서 증명됐다. 부제의 깔맞은 화면을 구성해 그 회차의 분위기까지 미리 보여주며 쏠쏠한 재미를 선사한 바 있다. 작품은 시청률 면에서는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트렌디한 내용과 부제 연출이 온라인과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실제 체감 인기를 선점했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부제가 있는 드라마는 방송 중간에 유입되는 시청자도 쉽게 이해시킨다"며 "SNS의 경우 해시태그(# 뒤에 특정단어를 넣어 연관된 글·사진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와 결합해 무한한 홍보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부제의 기저를 설명했다.

/권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둘째 딸 낳은 박탐희, 안방 컴백

'그대는 나의 인생'으로 뮤지컬 스타 변신

배우 박탐희(사진)가 SBS 새 아침드라마 '그대는 나의 인생'에 출연한다. 지난 10월 둘째 딸을 출산한 후 첫 복귀작이다.

'그대는 나의 인생'은 남편밖에 몰랐던 여자 공수래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멋진 남자 박찬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박탐희는 박찬우(조연우)의 부인 최이경 역을 맡았다. 사랑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열정적인 뮤지컬 스타다.

결혼과 출산 후에도 드라마·예능·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온 박탐희가 화려한 스타를 어떻게 그려낼 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작품에서는 손은서·조연우 등과 연기호흡을 맞춘다.

윤손하는 남편밖에 몰랐던 여자 공수래로 분한다. 고등학생 때 첫눈에 반한 남편밖에 모르고 살다 옆집에 이사 온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 조연우는 최이경의 남편이자 공수래의 키다리 아저씨 박찬우 역을 맡았다.

작품은 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 후속으로 내년 1월 방송될 예정이다. /권효진기자

엄태웅 부녀 '슈퍼맨' 합류

내년 1월 첫 방송… 타블로 부녀는 28일 하차

배우 엄태웅(사진)이 딸 엄지온과 함께 KBS2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 합류한다.

'2일 슈퍼맨 제작진은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타블로와 딸 하루가 2014년을 마지막으로 '슈퍼맨'에서 하차하게 됐다. 그 뒤를 이어 엄태웅 부녀가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멍뚱한 매력의 엄태웅이 새해 세 살이 되는 딸 엄지온과 함께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타블로와 이하루 부녀의 마지막 출연은 오는 28일 방송될 예정이다. 엄태웅과 딸 엄지온의 첫 등장은 내년 1월4일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 /정성호기자 [illegible]

일반인 커플의 마피아게임 '통할까?'

관찰형 예능 JTBC '비밀연애' 3일 첫 방송… 우려 속 뜨거운 반응

일반인 남녀 커플 다섯 쌍이 총상금 1000만원을 두고 마피아 게임을 펼친다.

룰은 간단하다. 3박4일 동안 실제 커플이 아닌 척 연기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커플인 듯한 두 명을 지목해 하루 한 커플씩 하차시킨다. 탈락자로 지목된 커플이 실제 연인이 아닐 경우 나머지 사람 중 한 명이 탈락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커플이 상금 1000만원을 나눠 갖는다.

JTBC의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 '비밀연애-사라진 연인들'이 3일 출격한다. '마녀사냥'의 연출을 맡았던 김민지 PD가 오래 전부터 염원해온 일반인 대상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 PD는 2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에 신중히 답했다.

'비밀연애'는 이미 사고 전례가 있는 포맷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연출진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만큼 출연자 성향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섭외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김 PD는 "출연자 섭외 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집중해서 봤다. 프로그램 설명을 충분히 하고 [illegible] 재미를 느끼는 분들 중 개성있는 구성이 가능한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커플인 척도 하면서 또 아닌 척도 하고

김 PD는 이어 "방송 등급이 15세다. 수위에 대해 출연자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됐으면 한다'는 식으로 상의한다. 가벼운 스킨십은 있다. 일반인들이기에 비호감이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편집에 신경 썼다"며 "시청자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 한다. 밝고 명랑한 20대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 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에는 구석구석 보조를 선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현장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은 실제"라고 출연자 [illegible] 소개했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1300건이 넘는 참가 신청이 몰렸다. 김 PD는 "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나의 연인이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 하는 젊은 커플도 많다"며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다음 얘기가 궁금했다. 3일 동안 분리돼 있는 실제 커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스타·동네우스·즐거운 가 등 지상파 3사 인기 예능에 도전장을 내미는 '비밀연애'는 3일 수요일 오후 11시 JTBC에서 첫 방송된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정부3.0

청춘을 응원하는 당신의 기부, 기분좋은 보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의
자유로운 날개를 접은 대학생들
당신의 기부가 그들의 희망날개가 되어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전화약정 (개인기부) 02-2259-2028, 2021 (법인기부)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 팩스 02-2259-2158
- 이메일 gift@kosaf.go.kr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100-025-420820
- 기업은행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1005-601-531623
- 외환은행 630-008641-710
- 하나은행 175-910011-87604

(예금주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지금은 라디오 시대' 통 큰 기부

MBC 라디오 표준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경차 30대를 기부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측은 1일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30곳에 경차 30대를 지원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적립됐던 잔여 기부금 4억5000만원으로 저소득 방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30곳에 경차 한 대씩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DJ 조영남·최유라, MBC 김남진 편성제작본부장, 김주현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동겸 다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외 29곳의 지역아동센터 대표와 실무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남진 MBC 편성제작본부장은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기자랑을 대신 전달하는 것일 뿐 실제 기부자는 라디오를 사랑해 준 청취자들"이라며 "그동안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전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의 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금은 라디오 시대'는 1996년부터 19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소개하고 청취자 후원을 받아 의료·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총 160억원이며 한해 동안 모이는 성금은 평균 10억원, 해마다 약 50가정을 지원 중이다.

기금은 통해 ▲ 2002년 시설퇴소청소년장학금지원사업(1억8000만원) ▲ 2005년 청소년 홀로서기 장학금 지원사업(3억원) ▲ 2008년 노인 실버카 지원사업(2억원) ▲ 2009년 자랑지원사업 (4억원) ▲ 2011년 자랑지원사업(6억여원) 등을 한 바 있다. /탄호진기자 jjoh@

MBC 표준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MBC 제공

남규리, 오드리 헵번 기억하다

탄생 85주년 기념 '문리버' 리메이크 앨범 발매

배우 남규리(사진)가 오드리 헵번 탄생 85주년을 기념하는 '문리버'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다.

'문리버'는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곡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노래다.

지난 1일 국내 온라인 음원사이트 벅스를 통해 공개된 '문리버' 리메이크 디지털 음원은 원곡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어쿠스틱 편곡인 음악 색깔이 어우러져 귀를 사로잡는다. 남규리의 속삭이는 듯한 창법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평소 오드리 헵번을 동경해온 남규리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한 오드리 헵번의 나눔정신을 본받아 왔다.

소속사 측은 "남규리가 르완다 봉사활동, 아프리카 부룬디 6남매를 위한 기부 모금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음원 공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남규리는 최근 방송된 MBC 드라마 페스티벌 '하우스 메이트'를 통해 섬세한 내면 연기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효진기자

힙합 리듬에 실은 공감가는 메시지

소울다이브 1년 반 만에 새 앨범 '신' 발표

엠넷 '쇼미더머니2'에서 우승한 힙합 그룹 소울다이브(넋업샨, 지토, 디테오)가 약 1년 반만의 새 앨범 '신'을 2일 정오에 발표했다.

소울다이브는 지난달 29일 '비토스 소사이어티 퍼스트 엑시비션' 쇼케이스와 지난달 30일 '홍대 in 뮤즈' 콘서트 무대를 통해 새 앨범 타이틀곡인 '신'을 공개했다. 그들만의 힙합 소울과 함께 겨울에 어울리는 멜로디라인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소울다이브의 앨범 타이틀이자 동명 타이틀 곡인 '신'은 '좌약, 적은 지음' 등을 뜻한다. 프로듀서 스코어의 비트 위에 소울다이브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곡이다. 티저 공개부터 힙합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노래로 리이브에서 먼저 접한 관객들도 호평을 보냈다.

특히 공감 가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빈곤한 건 네 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내 맘 속이라 내리막 뒤에는 오르막길과 다시 또 만나는 것뿐이야" "꿈꿔봤자야 재편 똑같은 하루한데 사람을 해봐도 결국 끝나면 혼자 우네 섞여 사는 게 뭐 사람 냄새라던데 외롭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보다 입에 달라붙네" "나를 좀 봐 숨 쉬는 것에 절반이 한숨이야 나이를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을까 걱정이야" 등의 가사가 눈길을 끈다.

소울다이브 소속사 엘라이브 측은 "이번 앨범은 소울다이브만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져 있다"며 "힙합 팬들은 물론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들로 채웠다"고 전했다.

이번 앨범에는 총 8곡이 수록됐다. 소울다이브의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은 곡들이다. 스펙킨트럼펫의 보이락, 레이백사운드 등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정병원기자 solaseri@metroseoul.co.kr

빅뱅 베스트 앨범 日 오리콘 석권

그룹 빅뱅(사진)의 베스트 앨범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1위를 차지했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발매된 빅뱅의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 오브 빅뱅 2006-2014'는 오리콘 월간 앨범 차트 1위에 이어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빅뱅의 베스트 앨범은 발매 첫 주 동안 12만4423장이 판매됐다.

이 앨범은 빅뱅의 데뷔 5주년과 일본 내 5대 돔 투어 개최를 기념해 발매됐다. 일본 데뷔곡 '마이 헤븐'과 히트곡 '판타스틱 베이비' 등 대표곡 50곡을 3장의 CD에 수록됐다.

또한 뮤직비디오와 공연 영상 등을 담은 2장의 DVD도 함께 포함돼 있다. 빅뱅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작품이라는 평가다.

데뷔 5주년 기념 빅뱅의 작품 총망라

한편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이 지난달 21일 국내에서 발표한 싱글 '굿보이'는 오는 17일 일본 발매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연말 극장가 할리우드 공세

'엑소더스' '사랑에 대한…' '호빗' 등 1주일 간격 개봉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연말을 겨냥해 대거 개봉한다. 한국영화에 맞설 기대작들이 1주일 간격으로 개봉해 극장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하 엑소더스)이 3일 극장가를 찾는다. 서로 형제로 자랐으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제국과 맞서게 되는 모세스(크리스찬 베일)와 스스로를 신이라 믿는 이집트의 왕 람세스(조엘 에저튼)의 대결을 그린 대서사극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에일리언' '델마와 루이스' '블랙 호크 다운' '글래디에이터'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든 거장 감독이다. '엑소더스'는 고대 이집트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런던과 스페인 등에 대규모 세트를 설치해 촬영했다.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스티븐 자일리안이 영화 각본에 참여했다.

오는 10일에는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실화를 다룬 로맨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개봉된다. '리브 엑츄얼리' '레미제라블' '어바웃 타임' 등을 제작한 워킹 타이틀 작품이다.

영화는 스티븐 호킹과 그의 삶을 바꾼 기적 같은 사랑을 선사한 여인 제인 와일드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레미제라블'에서 청년 마리우스로 열연한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스티븐 호킹 역을 맡았다. 상대역인 제인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로 얼굴을 알린 펠리시티 존스가 연기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호빗'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오는 17일 개봉을 확정했다. '호빗'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자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연결점이 되는 작품이다. 영화는 난쟁이족과 인간 군대, 엘프 군대, 오크 군대, 그리고 드워프 군대까지 다섯 군대의 전투를 그렸다. 144분의 러닝타임 중 3분의 1에 달하는 45분이 전투 장면으로 관들의 기대감이 높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는 24일에는 디즈니의 뮤지컬 영화 '숲속으로'가 오픈된다. 그림형제의 동화 속 인물이 등장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인투 더 우즈'가 원작이다. '시카고'의 롭 마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메릴 스트립, 조니 뎁, 에밀리 블런트 등이 출연한다.

12월의 마지막은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맡은 영화 '언브로큰'이 장식한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언브로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올림픽 영웅에서 전쟁 포로로 기구한 인생을 산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영화화했다. 코엔 형제가 각본을 맡았으며 오는 31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랑에 대한 모든 것

호빗: 다섯 군대 전투

새해에 만나는 팀 버튼

신작 '빅 아이즈' 내년 1월 상영

팀 버튼 감독의 3년 만의 신작 '빅 아이즈'가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했다.

'빅 아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은 '빅 아이즈' 그림을 그린 진짜 주인을 둘러싼 놀라운 사건을 담은 영화다. '빅 아이즈' 그림은 빠져들 것 같은 큰 눈을 가진 소녀들을 그린 그림으로 팀 버튼 감독의 서뜸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준 작품이다.

'아메리칸 허슬'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에이미 아담스가 주인공 마가렛 킨을 연기했다. '장고: 분노의 추적자'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휩쓴 크리스토프 왈츠는 마가렛 킨의 남편 월터 킨으로 분했다.

'빅 아이즈'는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먼저 공개돼 유수의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자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장하고 싶은 영화"라고 평했고 무비 시티 뉴스는 "충격적이고 우아한 영화"라고 찬사를 보냈다. /장병호기자

'절세미녀' 하지원 스크린에

'허삼관'으로 새로운 매력 발산

배우 하지원(사진)이 영화 '허삼관'(감독 하정우)으로 스크린을 찾는다.

'허삼관'은 돈 없고 대책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뒤끝은 넘쳐나는 허삼관(하정우)이 절세미녀 아내와 세 아들을 둘러싸고 일생일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중국 소설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가 원작이다.

영화 '해운대'로 천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내 사랑 내 곁에'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하지원은 연기력과 흥행성 모두를 입증한 충무로 대표 여배우다. 최근 드라마 '기황후'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하지원은 '허삼관'에서 마을의 절세미녀 허옥란 역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극중 허옥란은 새침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다. 허삼관과 결혼한 뒤에는 억척스러우면서도 당찬 모습으로 반전을 보여준다.

하지원은 "허옥란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나와 어울릴지 고민도 많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라 선택하게 됐다. 하지원이 만든 옥란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허삼관'은 내년 1월15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CGV 미얀마 진출한다

CJ CGV(대표이사 서정)가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다.

CGV는 지난 10월 말 미얀마 정부의 투자허가승인을 획득한 뒤 미얀마 대표 기업 STD 그룹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 오는 6일부터 정션 시네플렉스 운영을 시작한다.

정션 시네플렉스는 STD 그룹이 2009년에 설립한 미얀마 최초의 멀티플렉스다. 2개 도시에 3개 극장 6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얀마에서 약 15%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얀마는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3배이자 남한보다 7배 큰 영토를 가진 국가다. 2018년까지 7%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약 6000만 명의 인구 중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문화 콘텐츠 소비 연령대 인구도 풍부하다.

높은 경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영화 시장은 전체 스크린 70여개, 연 박스오피스 900만 달러(2013년 기준)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영화관 선호도가 높아 향후 콘텐츠 확대와 스크린 수 증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서정 대표이사는 "국내 영화관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에서 CJ CGV는 글로벌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얀마 극장사업 투자를 통해 그 동안 쌓이온 선진적인 극장 운영과 서비스 노하우를 전파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J CGV가 오는 6일부터 운영하는 미얀마 멀티플렉스 정션 시네플렉스 /CGV

CJ CGV는 2006년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이래 현재 중국 33개, 미국 1개, 베트남 18개, 인도네시아 12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시장 진출로 총 5개국 67개 극장 497개 스크린을 보유하게 됐다. /장병호기자

메시·호날두·노이어 올해 최고의 축구 선수는?

발롱도르 최종 후보 3인 선정… 무니는 호날두 점쳐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Ballon d'Or)의 최종 후보 3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선정됐다.

FIFA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IFA 발롱도르의 최종 후보 3인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프랑스어로 '골든볼'을 뜻하는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잡지 '프랑스풋볼'이 1956년부터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시상해온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10년부터는 FIFA와 손잡고 'FIFA 발롱도르'로 명칭을 바꿨다.

'FIFA 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2010년 처음 이 상을 받은 선수는 메시다. 그는 2012년까지 3년 연속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호날두가 메시를 제치고 상을 받았다. 올해 역시 호날두와 메시의 2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호날두는 올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정규리그 12경기에 출전해 20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득점 3위인 메시(10골)와는 두 배 이상 격차를 벌렸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통산 23골을 터뜨리면서 역대 최다골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에 맞서는 메시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74골을 넣으며 역대 최다 골잡이로 이름을 올렸다. 프리메라리가 개인 통산 최다골(253골) 기록까지 세우는 등 호날두와 최고의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호날두·메시와 경쟁하는 노이어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선방쇼를 펼치며 독일의 우승에 힘을 보탠 골키퍼다. 브라질 월드컵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으며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13경기에서 단 3골만을 허용했다.

발롱도르와 관련해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7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메시를 꺾고 수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니는 당시 맨유의 자체 방송인 MUTV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FIFA 발롱도르를 받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호날두가 상을 받을 것"이라며 "호날두는 최근 2~3년 동안 믿기지 않는 활약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호날두는 메시를 확실히 꺾어냈었다. 현재 최고의 선수는 호날두"라고 강조했다.

한편 FIFA 발롱도르 여자부문 최종후보 3명은 애비 웜바크(미국)·나디네 앙게레르(독일)·마르타(브라질)로 압축됐다. 아울러 올해의 남자 감독 최종 후보는 카를로 안첼로티(이탈리아·레알 마드리드)·요아힘 뢰브(독일·독일축구대표팀)·디에고 시메오네(아르헨티나·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좁혀졌다.

FIFA 발롱도르 수상자는 209개 FIFA 가맹국의 감독과 주장, 기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내년 1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김학철기자 kmc@metroseoul.co.kr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누엘 노이어

앙리·제라드, 전설의 행보는?

앙리 뉴욕과 계약 만료 美 떠나
제라드 리버풀 재계약 제안 받아

축구 전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티에리 앙리(37·프랑스)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를 5년 만에 떠나게 됐다.

앙리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MLS 동부콘퍼런스 결승에서 뉴잉글랜드에 1·2차전 합계 3-4로 패하면서 2014 시즌을 마감했다.

시즌을 마친 그는 "지난 주말 경기가 내가 뉴욕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였다"며 "몇 주 동안 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앙리는 AS모나코와 유벤투스를 거쳐 1999년부터 아스널에서 뛰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FC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다. 2010년 뉴욕에 새 둥지를 틀었으며 2011~2012시즌에 잠시 아스널로 단기 임대를 다녀온 바 있다.

앙리는 현역에서 은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의 주장인 스티븐 제라드(34)는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

브렌던 로저스 리버풀 감독은 1일(현지시간) 레스터시티와의 정규리그 경기를 앞두고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라드 측에 리버풀과 재계약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라드는 유소년 시절부터 리버풀에 몸담았으며 1998년 프로 데뷔 이후 지금까지 리버풀과 함께했다. 현재 계약은 올 시즌까지다.

최근에는 로저스 감독과의 마찰로 리버풀을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로저스 감독은 제라드와의 불화설에 대해 "갈등은 150% 없다"며 일축했다.

로저스 감독은 "제라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내가 함께 일한 선수 가운데 최고다. 계속 함께하고 싶다"며 "재건을 고려할 시간은 가능한 한 많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김효주, 롯데그룹과 5년 재계약

2019년까지 65억+α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하는 김효주(19·사진)가 롯데그룹과 5년 재계약으로 2019년까지 함께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5년 동안 김효주에게 부대비용을 포함한 국내 선수 최고 수준인 연 계약금 13억원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우승시 상금의 70%, 5위 이내 30%)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인센티브로는 LPGA 상금 랭킹 1위, 세계랭킹 1위, 그랜드슬램 달성 시 1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올 한해 인센티브 11억원을 받은 김효주는 상금 규모가 큰 LPGA 투어 진출 시 성적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프로 데뷔와 함께 롯데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었던 김효주는 같은 해 현대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해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에는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을 비롯해 하이트 챔피언십, KB금융 스타챔피언십까지 국내 3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등 5승을 올렸다. 아울러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LPGA 무대 출전권을 따냈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전자랜드	18	17	18	24	77
KCC	14	25	15	34	88

프로배구 전적 2일

LIG손해보험	0	3	현대캐피탈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8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